

## 손상 발생 현황 통계 발간 손상 경험·입원·사망 전년 대비 증가

- 질병청,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 발간 통해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
- 2024년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전체 사망자의 8.3%, 사망원인 4위)
-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매년 증가, 입원환자 중 75세 이상 고령층의 72.5%, 0-14세 소아의 44.8%가 추락·낙상으로 입원(2023년 기준)
-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4%에서 2024년 8.0%로 9년 새 3.3배 가량 증가(2023년 대비 1.6배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를 발간하였다.

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

\*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손상예방법」 제2조)

【 표 1. 자료원별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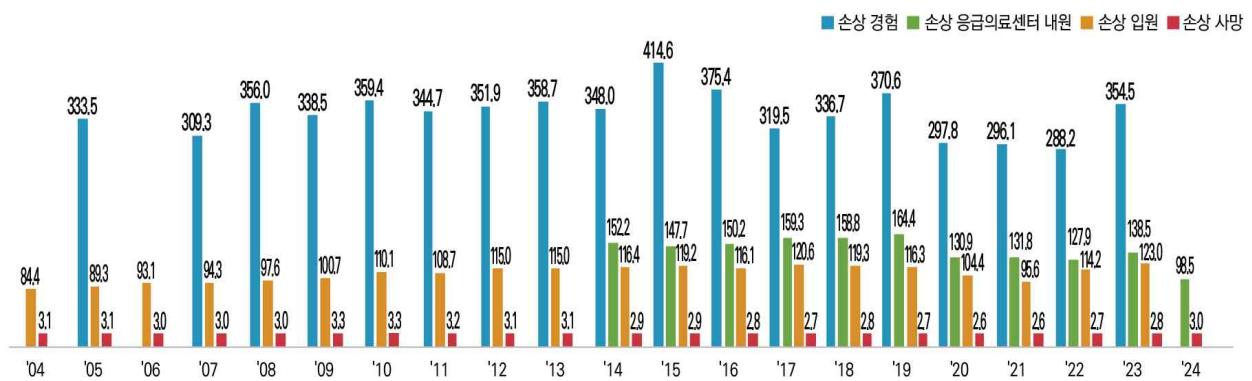
자료명(활용연도)	조사대상	생산기관
퇴원손상심층조사 (2004-2023년)	표본병원 퇴원(입원)환자 (연 150~250개 병원, 30만여 명), 전 연령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15-2024년)	23개 참여병원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20만여 명), 전 연령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2015-2023년)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환자(6만여 명), 전 연령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2023년)	표본가구 가구원 (연 192개 지역, 4,800개 가구, 1만여 명), 1세 이상	질병관리청
사망원인통계 (2004-2024년)	사망자 전수, 전 연령	국가데이터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통계 (2014-2024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전 연령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연 143~179개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표1 참고)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

## 1. 손상 경험, 입원 및 사망 전년 대비 증가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23년), 입원환자는 123만 명('23년), 사망자는 3만 명('24년)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22년, '23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22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참고).

(단위: 만 명)



【 그림 1. 손상 경험, 응급의료센터 내원, 입원환자, 사망자 추이 】

- \*(손상 경험)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사람
- \*(손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NEDIS 통계연보, 질병이 아닌 손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 \*(손상 입원) 퇴원손상심층조사, 손상을 주요 이유로 입원한 환자
- \*(손상 사망) 사망원인통계,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인 사망자
- 손상 경험자, 입원환자는 전 국민의 인구 분포를 반영하여 사람 명수로 환산,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수, 사망자수는 실제 각 해당 연도의 사망한 사람 수

'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표 2 참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표 2 참고),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표 2. 2024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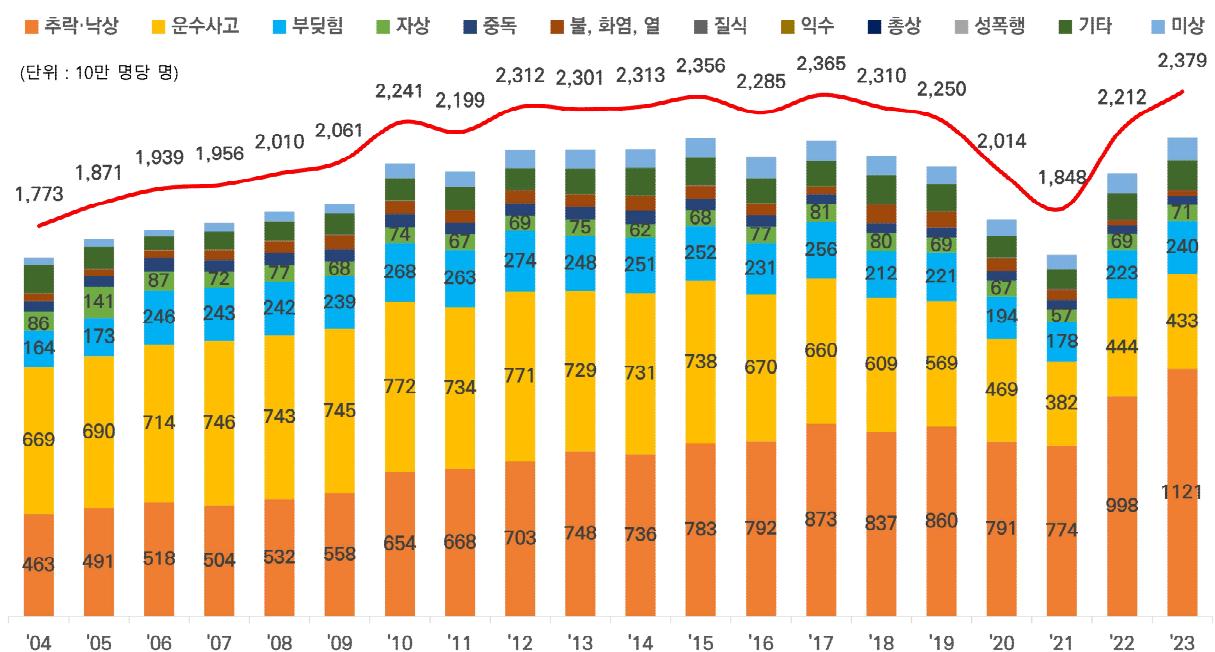
사망원인	전체	0-14세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이상
전체	702.6	19.8	29.5	52.9	99.5	208.7	436.1	981.0	5,676.70
손상 <sup>†</sup>	58.3	4.2	20.2	33.6	41.5	50.7	60.3	78.9	228.5
	(8.3%)	(21.4%)	(68.6%)	(63.6%)	(41.8%)	(24.3%)	(13.8%)	(8.0%)	(4.0%)
	174.3	1.8	3.0	6.2	20.5	62.9	167.4	391.6	1,084.2
암	(24.8%)	(9.2%)	(10.1%)	(11.7%)	(20.6%)	(30.1%)	(38.4%)	(39.9%)	(19.1%)
	65.7	0.6	0.6	1.9	6.3	16.4	35.1	80.2	579.6
	(9.4%)	(3.1%)	(1.9%)	(3.6%)	(6.4%)	(7.8%)	(8.0%)	(8.2%)	(10.2%)
폐렴	59.0	0.3	0.3	0.5	1.3	3.2	11.9	47.3	627.8
	(8.4%)	(1.3%)	(1.1%)	(1.0%)	(1.3%)	(1.5%)	(2.7%)	(4.8%)	(11.1%)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자료원: 사망원인통계(2024년)

2. 소아(0-14세) 및 75세 이상 고령층의 손상으로 인한 입원은 추락·낙상이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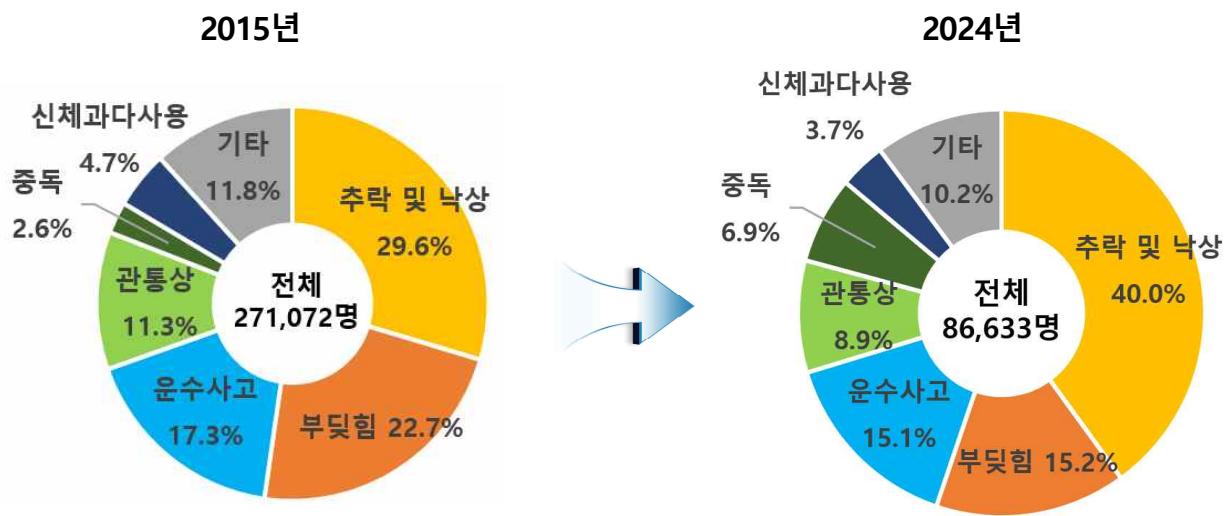
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19.9%), 부딪힘(11.0%)이 많았다(그림 2 참고, '23년).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40.0%), 부딪힘(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그림 3 참고, '24년).



### 【 그림 2. 손상 입원환자의 손상기전 분포 】

\* 자료원: 퇴원손상심층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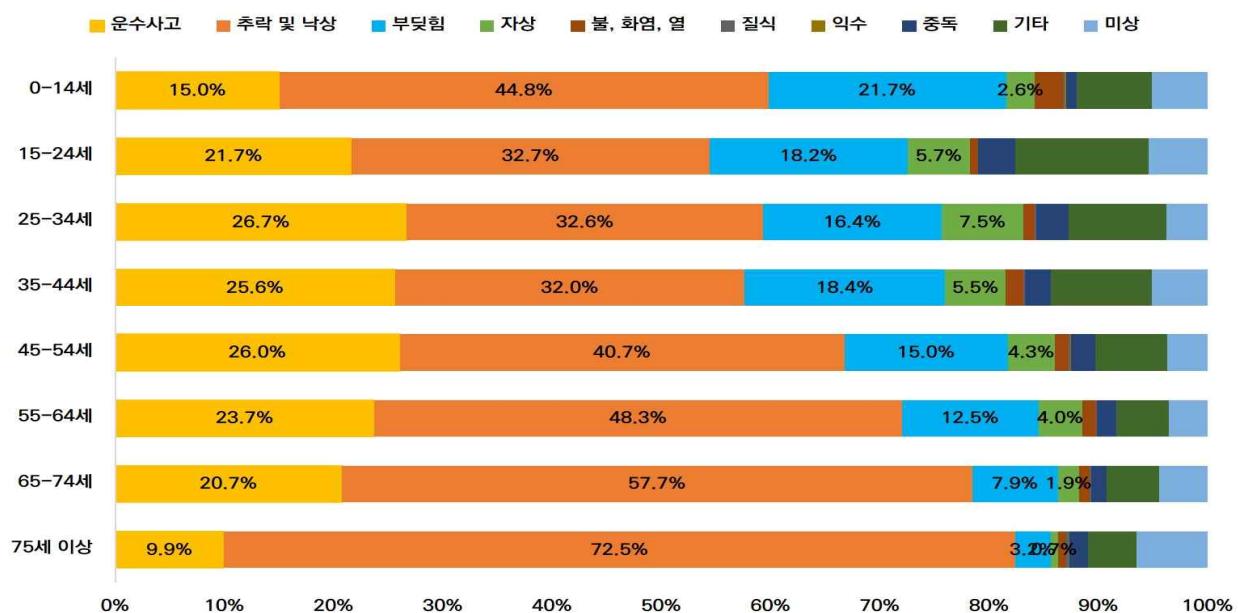
\* 상단의 꺾은선 그래프는 전체 손상을 의미



【 그림 3.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의 손상기전 분포 】

\* 자료원: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015년, 2024년)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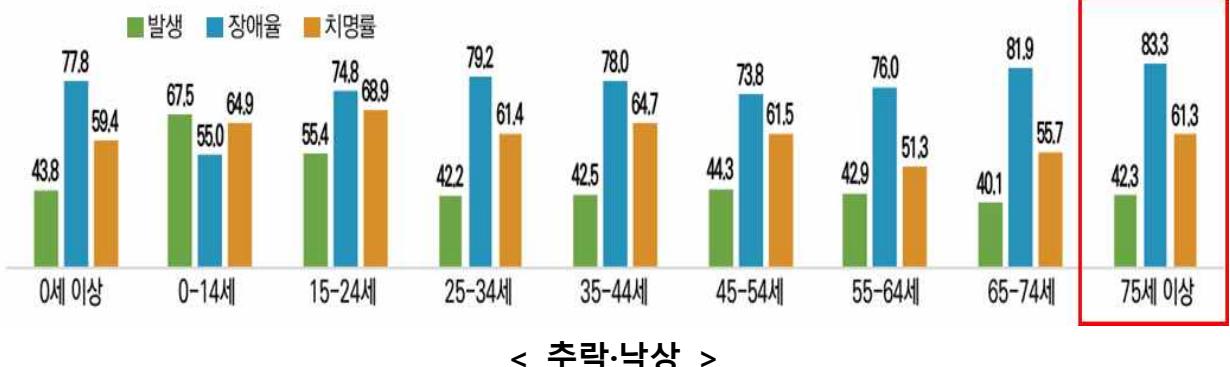
【 그림 4. 연령별 손상 입원환자 분포 】

\* 자료원: 퇴원 손상환자 심층조사(2023년)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발생원인 1위)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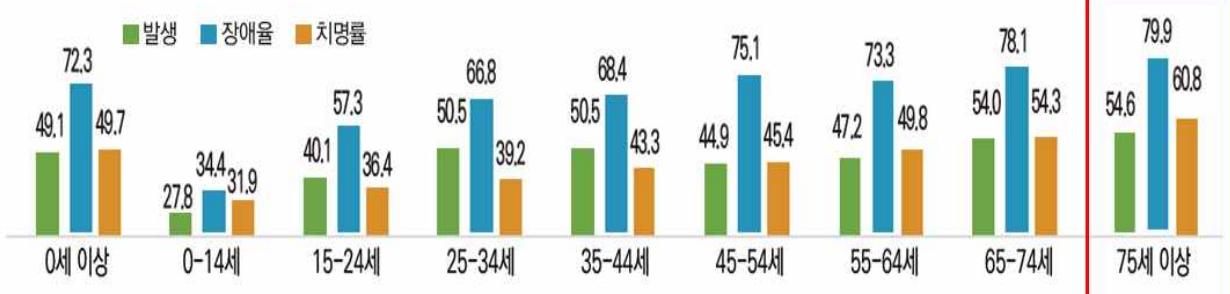
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42.3%)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고).

(단위: %)



#### < 추락·낙상 >

(단위: %)



#### < 운수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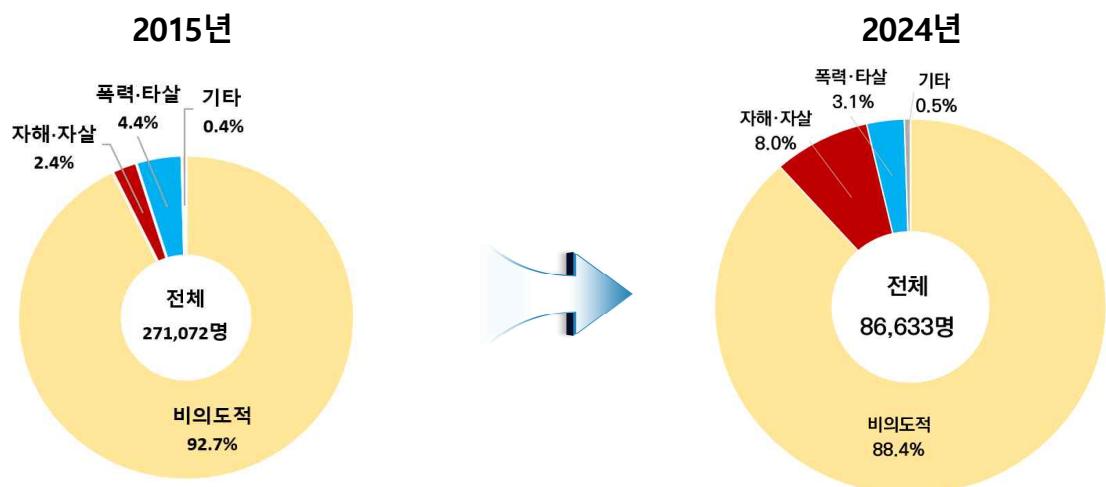
### 【 그림 5. 연령별 운수사고 및 추락·낙상 중증외상환자의 장애율 및 치명률 】

- \* 자료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2023년)
- \*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에 의한 외상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경우
- \* (분포) 전체 중증외상 환자수를 분모로 각 손상유형별 환자수에 대해 산출
- \* (장애율) 생존환자 중 퇴원시 글리스고우 결과 척도로 평가된 활동장애정도가 식물인간, 중증장애, 중등도장애인 분율
- \* (치명률) 중증외상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분율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나이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동영상)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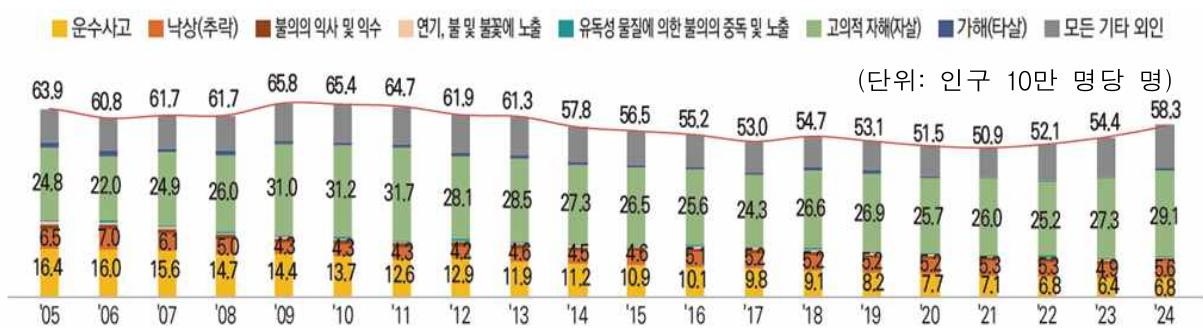
### 3. 자해·자살 시도 손상기전 대부분은 중독(입원 76.1%, 응급실 67.4%)

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24년)(그림 6 참고).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23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24년)(그림 7 참고).



【 그림 6.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의 의도성 분포 】

\* 자료원: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2015년,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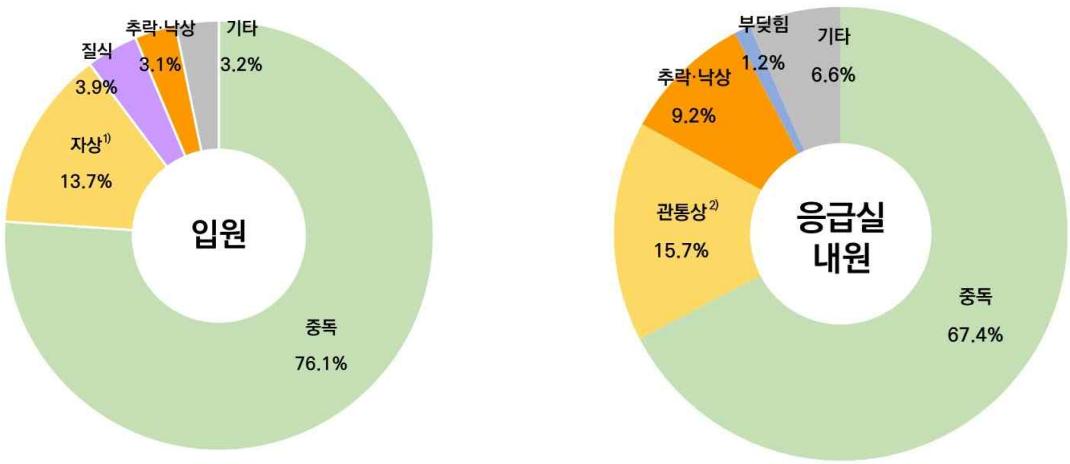


【 그림 7. 원인별 손상 사망률 추이 】

\* 자료원: 사망원인통계

\* 상단의 꺾은선 그래프는 전체 손상을 의미

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입원 76.1%, 응급실 67.4%)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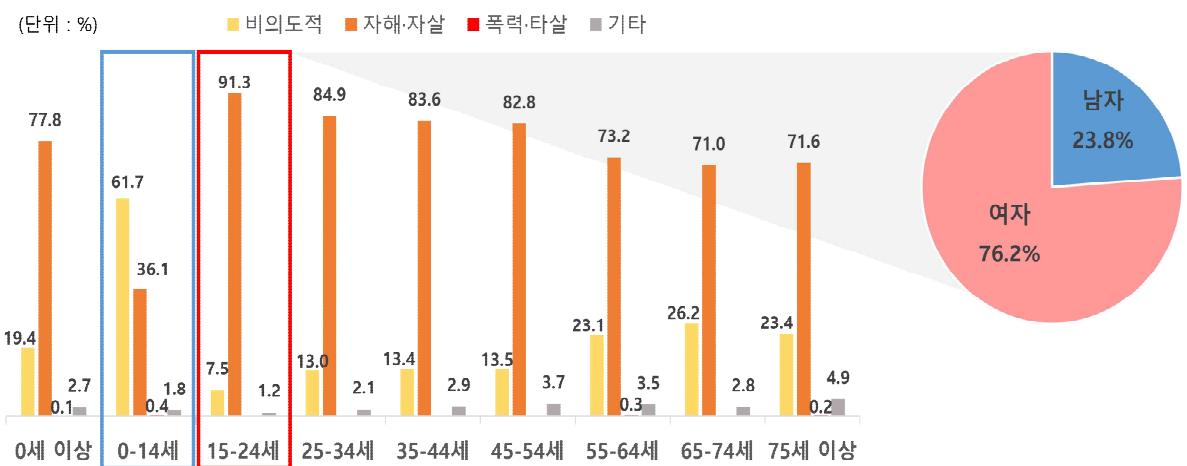
【 그림 8. 자해·자살로 입원 및 응급실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 분포 】

1) 자상, 베임, 절단 물림 등을 포함하나 총상은 포함하지 않음

2) 자상, 베임, 절단, 물림, 총상 등을 포함

\* 자료원: 퇴원손상심층조사(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24년)

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23.8%)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그림 9 참고).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그림 9. 중독 손상환자의 의도성별 성·연령별 분포 】

\* 자료원: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24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는 PDF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제작하여 배포되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료 열람 및 내려받기 경로: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통계집 >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5

담당 부서 <총괄>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장	전은희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담당자	주무관	박상연 (043-219-2942)
		담당자	연구원	박소현 (043-219-2961)
담당 부서 <협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성우 (02-3407-4057)
		담당자	부센터장	이태영 (02-3407-4058)
		담당자	연구원	서예지 (02-3407-4054)